

월요광장

아껴놓은 땅 전남



김우향  
이화여대 석좌교수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얼마나 먼 것들까지를 고려해야 하는가? 방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그때 발을 드러 놓는 ‘밖’이라는 것은 사실은 광대무변한 우주공간이다. 더러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이 ‘밖’이 눈앞의 광경 또는 주변이 아니라, 별에 이르는 공간이라는 것을 의식한다.

이 우주공간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에너지와 입자들이 사람의 몸에 부딪치고, 그것을 꿰뚫고 지나간다. 한 사람의 몸으로 지나가는 뉴트리노 입자는 초당 수십억 또는 수조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별로 나쁘거나 좋은 효과를 내지는 아니한다. 우주선

(宇宙線)은 지구의 자장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에 큰 해를 입힐 것이라고 한다. 현재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우주선에 관계된다는 이론도 있다.

이에 비슷하게 여러 별들의 인력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구 축의 경사도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당장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별을 쳐다보면서 길을 가던 탈레스가 도랑에 빠졌다는 것은 너무 먼 것이나 큰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말하는 일화이다.

그렇다고 발밑만 보고 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방 바깥의 우주공간은 인간사(人間事)를 새로운 원근법으로 보게 한다. 도랑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과학이 우주공간의 탐험에 나갈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큰 세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지금의 시대이다. 그러나 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관계된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삶을 위해 교통과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를 느낀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의 균형이다. 이것은 특히 사회적인 조건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

오늘의 삶의 조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테두리만을 논하는 것을 들으면-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원인, 기원, 신자유주의라는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그 조건 속에서라도 오늘의 삶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삶의 여러 조건들은 중심원적인 테두리를 이룬다. 이것들은 나누어서도 생각하고 함께도 생각하여야 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녹색의 땅 전남’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은퇴를 준비하십니까? 따뜻한 남쪽 땅 전남으로 오십시오!”하면서 일조량, 공기, 농산물 등이 좋고 생활비가 낮은, 행복의 땅 전남으로 오라는 권고가 들어 있었다. 그 몇 주 전에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지역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아껴 놓은 땅’은 1990년대 초에 나오던 하였던 목포 도시계획 보고서의 제목이었다. 그 제목은 산업화에는 늦었어도 다른 발전 가능성을 가진 곳이 전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 지역마다 산수도 다르지만, 건축 양식이나 문화 전통이 서로 다른 지역문화가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북독과 남독,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말마 전에는 남쪽 바에른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와 한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태리의 경우도 도시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 업적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 지방 의식은 통일된 국민 의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의의를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을 본다. 국가 발전을 전체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지방들도 스스로의 독자적 발전을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 말한 광고와 같은 것은 지방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고려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고

무등산 전망타워 논란에 부쳐

무등산은 광주공동체의 공간이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보호국장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언니와 나, 남동생을 데리고 가끔 숲과 바다로 캠핑을 갔다. 어느 날 캠핑을 간 곳은 울창한 나무숲이 있었고, 밤이 되자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주위로 인해 잠을 청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보았던 무수히 많은 별들과 은하수는 나에게 감동 그 자체였다.

추억 속의 그곳은 무등산 산장이었다. 계곡의 물소리와 한여름의 추위, 하늘의 별은 무등산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추억이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시절 중풍에서 바라본 무등산의 노을, 무등산의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은 나의 감성과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쁜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무등산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다. 좋아하는 이들과 오르는 산길, 중머리재의 시원한 바람, 목

하였던 경험이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의 무등산에 대한 애정은 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무등산을 지정 신청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우리가 무등산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가능했다.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우리가 아직까지 무등산의 보전을 위해 풀지 못했던 숙제들, 정상의 군부대, 통신철폐의 통합, 원효사의 상가이전, 사유지매입과 무등산의 건강한 생태를 만들기 위한 복원사업과 생물종 조사사업 등 무등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

계를별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 결정이 된지 불과 한 달도 되지않은 지난 1월 10일, 전남도는 무등산 정상에 518m 높이의 전망타워(무등산 해발 1187m)와 증심사와 화순 수만리에서 돌리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무등산은 원래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 도시의 개발로 인해 사라진 동산과 골목길, 마을을 대신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그 품을 내어준다. 우리의 삶은 무등산이 있어 더욱 풍요해지고 안정된다.

굳이 호남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등산을 통해 치유

높여 광주전남 공동의 자산이 되길 바라는 반면, 전남도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누군가는 무등산을 개발해서 사육을 챙기고자 한다. 지난 90년대 무등산 운림은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무등산의 초입에 온천과 호텔을 건립해 개발이익을 얻고자 한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무등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소명은 무등산을 위기로부터 지켜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무등산은 광주의 역사와 시련을 기억하는 공간이며, 우리의 추억이 공유되는 공간이기에 광주공동체의 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등산은 급속한 개발의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공동체, 자연, 문화 등을 다시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단순히 무등산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사육을 채우는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변형하고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전남도지사도 무등산을 관광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틀을 벗고, 무등산 공동체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이러한 바탕에는 도지사로서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같은 소송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나 소송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없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할 것이며, 판결이 났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복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모두가 가졌으면 한다.

위에 언급한, 소송을 즐겨하던 그 사람이 요새는 법원에 발걸음이 뜸하다. 많은 소송을 벌이고도 이긴 게 별로 없으니,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송들이 그 사람과 소송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값진 경험이 됐을 것이라 믿는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지 법원에 오셔도 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社說

시교육청, 실수로 임용시험 중단하다니

광주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이 광주 시교육청의 감독 실수로 도중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영어면접 관련 문제지를 걷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감독관이 규정을 몰라 이를 회수하면서 응시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산구 전남공고에서 ‘2013학년도 광주시 공립 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2차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날 시험은 영어수업 실연과 영어 면접으로, 1차 전형 통과자 499명이 응시했으며 수험생 중 최종합격자 362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면접에 앞서 미리 나눠준 문제지를 시험장까지 들고 들어가도 되는 사실을 모르고, 시험장 감독관이 이를 회수해 문제가 불거졌다. 수험생들은 “어떤 사람은 문제지를 계속 보고 하도 록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는 이런 무원칙한 시험이 어디 있느냐”며 강한 의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광주 구의원들, ‘잇속 췌기기’ 도를 넘었다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원들의 ‘잇속 췌기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공무원 월급극기도 빠듯한 구청의 재정 상황은 아랑곳 않고, 올 의정비를 일찌기 인상한 데 이어 일부 기초의회가 고가의 태블릿PC에 데이터 이용료까지 구청에 부담시켜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기초의회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지난해 6월초 대당 20~30만 원에 달하는 아이패드 15대를 해당 업체와 2년 약정으로 계약한 뒤 15명의 의원에게 지급했다. 또 의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 데이터 이용료(1인당 약 4만 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북구청도 시가 65만 원의 태블릿PC 20대를 구입해 의원들에게 배부했다. 구의회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명목으로 구청에 태블릿PC 지원을 요청했고, 구청은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었다.

문제는 각 구청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을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사적 용도인 이들 제품 구

입에 혈세를 지출했다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심분 안보해 공공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이들 제품을 애초 계획대로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하는지도 의문이다.

구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광주지역 5개 기초의회 모두 구청의 재정 상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데도 올해 대거 의정비를 인상했다. 전남 22개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민들로서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치민다.

구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지닌 의원들이 다분히 사적 용도인 제품구입비를 혈세에서 부담하고, 의정비나 울려서야 말이 되는가. 구의원들은 이제 자성을 통해 사사로운 ‘잇속’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無等鼓

영국 템즈강가를 따라 걷다 보면 높게 치솟은 인상적인 건물이 보인다. 1947년 건설된 낡은 화력발전소다. 유가 파동 등으로 발전소가 문을 닫은 게 1981년. 이후 20년 동안 도시의 흉물로 ‘미운 오리새끼’ 신세였다.

변화가 일어난 건 2000년이었다. ‘테이트 모던’이라는 새 이름을 단 발전소는 연간 500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의 하나가 됐다. 관람객 규모로는 루브르,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이어 4번째다. 철거 위기를 맞았던 낡은 발전소는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다.

1990년 중반, 정부는 미술관 신축 계획을 세웠다. 1997년 개관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성공을 거두면서 ‘멋진 외관’을 가진 미술관을 짓자는 의견들도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는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149개 팀 가운데 뽑은 당선작 역시 화려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설계가

아닌, 건물 외관의 변화 없이 기존 모습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지한 설계였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랜드마크’는 탐험가 등이 특정지역을 돌아다니다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오늘날에는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상징물과 조형물까지 의미가 확장됐다.

최근 전남도가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무등산에 518m짜리 초대형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랜드마크 논란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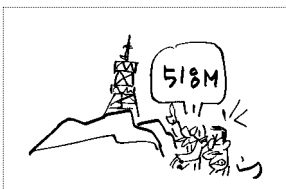
랜드마크 논란은 낯설지 않다. 건물이 지하에 자리잡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랜드마크 역할을 못한다’는 반대 여론 때문에 공사가 지체됐다.

전당 건물 위에 518m 높이의 민주·인권타워를 세워 랜드마크로 삼자는 황당한 발상도 있었다.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랜드마크 논란을 접하며, 규모와 질도습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랜드마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